

남대

근거의 성추행 진상규명 책임지 처벌을

위한 민족특헌 투쟁본부 건설에 대해

①정세

5,6월 사업계획서에 별첨

②투쟁본부의 제기 배경

- 반강역삼 투쟁전선체를 형성하는데 여학단위의 자활력을 높여내고 선봉장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 연세대 성추행 진상 규명 투쟁은 동지애의 바로
- 여학단위의 조직적인 결속을 다지고 조직강화를 위해
- 자금의 정세를 긴장감있게 가져가기 위해
- 여학생회의 정체성 확보

③투쟁본부의 위상과 역할

위상을 97년은 강역삼이 미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 4천만 민중들은 또 한 번 착취와 억압의 굴레에 갇히게 되느냐 아니면 강역삼이 하야되어 해방구의 물꼬를 트느냐는 상황이 걸린 문제 만큼 경각되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경북대 여학은 또한 각종 여학생운동에 개량화된 종류의 통수에 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 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식민지 한반도 절반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학은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어 있는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체계입니다.

역할: 여학생회 체계를 그대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또한 성추행 당한 7명의 우리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방관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7명의 투쟁이 아니라 50만 여학우의 선봉하는 투쟁으로 100만을 견인 하여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 여학우들과 접촉면이 가장 넓고 가까운 여학생회 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면서 8천 여학우들과 함께 투쟁으로 만들어 갑시다.

④투쟁본부 건설에 있어 관부들이 가져야 할 자세

희망을 가지자!!

신념을 가지자!! 혁명적 신념은 혁명투쟁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부딪쳐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사상적 원천이다
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보론: 우리 활동가내 일부 간부들은 조직생활을 지도하는데서 조직규율을 어떻게 지키고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주목하기는 쉽지만 그러면서 자칫 본산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 가하는 것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력을 높여 활동가로서의 품모를 갖추게 하기 위한 과정은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혁명실천은 사상개조의 좋은 방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로 됩니다.

우리 간부가 얼마큼 활동가로서 커졌는 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과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결의는 짧게 다지고 실천은 묵묵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합니다.

⑤ 여학생의 사업과의 관계

여학단위가 가져가야 할 사업을, 체계를 변경하면서 싸그리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을 가지는 단위간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직골간의 재정비는 당연 투쟁속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정비되어 더욱 정교하고 강위력한 체계 속에서 정치학교 형식을 통해 내용성을 담보해내고 그렇게 사상학습을 통해 모아진 공분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통해 발현 시켜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시기는 우리가 총회때 보여주었던 '경사'의 정신을 배가해서 요구되어지는 시기이다.

일상사업을 총화하고 지도하며 또한 여학간부들의 여학가로서의 역량과 기량을 길러내고 좀 더 대중적인 간부로 단련한다.

⑥ 투쟁본부의 구체적 체계 및 활동방향

☞ 체계

전체 투쟁 본부장은 총여부(?)회장이 되고, 단대 여학생회장님이 각 단대의 투쟁본부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본 산하에는 투쟁단, 정책단 두개의 체계로 꾸려집니다. 여기에 일상사업주체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쟁단:

은 민족 복원이 투쟁으로 술렁이고 있는 이 시기에 자신의 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새내기들과 재학생(특히 대동학교로 모아진 사람들), ☯과 여학생회 간부들, 여연, 탁아소모임

등 여학생회 두리로 묶여질 수 있는 사람들등 조직화 가능한 사람들은 무조건 선봉대로 꾸린다. 이과정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하겠습니다.

일상사업단

중앙 주체만 있습니다. 단위에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위는 다시 고민해 봅시다.

정채단;

각 단대 여연부장에게 제안합니다. 현재 각 단대에서는 단대 여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연 건설 또한 사람사업이기에 연대 성추행 투쟁으로 묶여 지는 사람들중 과여학생회장이나 평소에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학우를 파악해내고 이들을 투쟁속에서 중점적으로 만나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대여연 건설에 대해 제안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투쟁단을 운영해 가며 그 속에서 의식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짬막고양과 토론을 실시해봅시다. 여학생회의 필요성, 여성문제, 여성문제의 해결방향 등에 관해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상은 선봉대 전체입니다.

투본의 실질적인 활동은 투쟁단을 통해 조직화되고 광범위하게 가져갈텐데(이후 별칭) 투쟁단 대상은 단대 여학생회장님 중 한 분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활동방향

- 언제 시작할지??
- 체계 주체를 빠른 시일내로 세워내자!
- 아침8시 조례로 시작합니다.<다음 주 월(19일)부터>
- 전체 종례는 6시로 합니다.
- 12시거점(월,수,금은 복문에서 화,목,토는 복지관앞 에서)을 선정하여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여냅니다.
- 개인 모금함을 만듭니다.
- 강의실 아지와 개인별 면담을 통해 모금과 서명을 적극화해냅니다.
- 단위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2.연세대 성추행 진상규명 책임지 처벌을

위한 민족복원 선봉대 건설에 부쳐

투쟁단의 의의와 역할

식민지 남한 사회에서 김영삼 정권 아래서는 우리 여학우의 삶은 다각도로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성추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김영삼의 4년 폭정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을 적극화 해내고 그를 8천여학우와 이만 학우와 합치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간다.

첫째, 광범위한 공분형성에 주도적이어서 일상적인 대중에 대한 선전의식화로 대중정치부대의 역할을 한다.

둘째, 간부대오를 투쟁속에서 단련시키고 간부를 육성 발굴해 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쟁단 운영

주로 거점 선전전과 서명작업에 집중하고 사전교양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선전전과 강의실 아지, ※?대시민선전전 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선봉대의 조직체계

선봉대 대장은 각 단·여장님들 중 한 분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단대 주체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본 체계의 정책이나 선전이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조직화 하고 총화하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야기 해 봅시다.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12	13	14	15	16 한총련 3차 총결기 류재을 열사 장례식	17 대경총련 결 의대회 이후 민중대 회	18 한총련 광주 집중투쟁, 광 주순례	<p>▶ 단위 관담회 진 행</p> <p>▶ 신청서 배포</p> <p>▶ T제작, 근조 뺏지</p>
19 여막단위 정지학교 + 임다지기	20 성주행 투쟁단 1차 총회지점 ←대	21 등	22 민족복권 반미의 날	23 대중정치학교 제→	24 한총련 동시다발 반 미 투쟁투본 발대식	25	
26	27	28	29 대경총련 결 의 대회	30 성주행 ←한총련	31 투쟁단 전어대업 출범식	1 2차 총회 지점→ 출범식→	
2	3	4	5	6	7	8	